선명상으로 이끄는 한국불교 재발흥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취임 이후 선명상 대중화로 한국불교 재발흥을 염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왔다. 사진은 올해 6월 22일 열린 '사회적 약자 초청 법회'와 올해 3월 15일 경주 열암곡 마애부처님 앞에서 열린 '국민화합 기원 108배 기도법회', 지난해 9월 28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24 국제선명상대회'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취임 3주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한국불교 중흥 초석 다진 3년
선명상 보급–3원 통합 '성과'
AI 전법 등 포교 방향성 확장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마음의 평화를 지향하는 불교가 중생들을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방법을 찾아 모든 사람과 나누겠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3년 전 총무원장으로 취임하며 제시한 키워드는 분명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의 시대, 불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국민 마음에 안정을 주는 것. 그것이 불교 본연의 역할이자, 한국불교 미래를 담보하는 길이라는 믿음으로 진우 스님은 쉼 없이 달려왔다. '선명상 보급'으로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찾는 수행법을 제시했고, '5초 명상' '우선 멈춤' 등으로 선명상을 더욱 친근하게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여기에 조직개편으로 종단 체계를 정비해 내실을 다지고 운영 효율을 높였으며, 젊은 세대가 공감할 다양한 불교 콘텐츠를 기획해 포교·전법의 방향성을 확장했다.

이처럼 대중과 함께 호흡하며 시대 변화에 맞춘 끊임없는 변화의 시도는 불교 진입장벽을 낮추고 '쉬운 불교·친근한 불교' 실현을 이끌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선명상 대중화'로 국민 평안

선명상 대중화는 국민의 마음에 평안을 안착시키기 위한 제37대 집행부의 대표 역점 사업이다. 진우 스님은 취임 초기부터 국내외 명상 프로그램을 전수 조사하고 명상 지도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불교계 선명상 보급의 기반을 다졌다.

올해 2월에는 '선명상위원회'를 출범하며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을 본격화했다. 미래본부를 중심으로 선명상 대중화를 이끌 지도법사 51명을 양성했고, 프로그램 운영 사찰·기관 42곳을 선정해 전국 거점을 구축했다. 도심 사찰에서는 직장인을 위한 1시간 프로그램, '선명상 입문 4주 과정'과 '입문 2박 3일 집중 체험' 등 다양한 선택지도 마련했다. 템플스테이와 접목한 프로그램도 개발해 전국 40여 개 사찰에서 상시 체험이 가능하다.

온라인 플랫폼도 강화했다. 미래본부는 '선명상' 홈페이지를 개설해 선명상 관련 소식과 프로그램 안내, 선명상 영상 콘텐츠 등을 공개하며 접근성을 높였다.

국민이 직접 참여해 보고 느낄 수 있는 행사들도 전국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4월 1~6일 서울 봉은사에서 열린 '2025 국제선명상대회 개막식·국제선명상축제'는 세계적 명상가들이 참석해 효과적인 명상법을 소개했고, 총 157개의 다채로운 명상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어 경주, 인천, 부산, 세종, 대구, 전주 등 주요 지역에서 열린 선명상축제에는 15만 여명이 참석하며 성황을 이뤘다.

대미는 오는 10월 29일 국회에서 개최될 '2025 국제선명상대회 본행사와 국제 컨퍼런스'로 장식된다. '깨어나는 교육, 연결되는 우리-전인적 발달을 위한 교육적 제안'을 주제로, 해외 선명상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교육 현장에 적용할 필요성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나아가 미래세대가 자신의 마음과 감정을 관리하며 행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육·복지 현장에서 선명상 활용 방안을 교육부와 협의 중이다. 조계종은 앞으로도 선명상 지도법사 수를 확대하고, 국민 모두가 선명상을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모시기

불교중흥의 초석을 다지는 사업인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모시기는 연내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마애불 입불 사업은 '천년을 세우다'를 슬로건으로, 성금 모연과 기도회 등을 통한 대국민 원력 불사로 추진돼 왔다.

열암곡 마애부처님은 2007년 엎어진 채 발견되었으며, 통일신라 8세기 후반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조계종은 2023년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다라니 기도와 교구본사 주지스님 초청법회를 열어 불자들의 발걸음을 이끌었고, 전국 사찰과 단체 단위에서도 약 2만 5000명이 순례를 통해 마애불 입불에 마음을 모았다.

현재 국가유산청과 경주시는 열암곡 마애부처님의 입불 가능성 검증과 정비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2월 28일부터 실대형 모의실험 연구 사업을 진행 중이다. 11월 말까지 안정성 실험을 마무리하고 실험 결과 분석이 완료되면,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입불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직개편으로 종무행정 역량 강화

올해 4월에는 1994년 종단개혁 이후 30년 만에 기존 총무원·포교원·교육원의 삼원 체제에서 총무원 일원 체제로 통합하는 변화도 있었다. 이번 조직개편은 삼원으로 분산돼 역동성이 떨어지던 조직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직개편으로 부서 간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과 포교 시스템을 일관되게 운영할 기반이 마련됐다. 유기적이고 신속한 행정을 통해 국민과 불자들의 신심을 증장하고, 불교의 가치를 현대사회에 알리는 역할도 강화됐다.

다만 올해 6월 발생한 총무원 청사 화재로 중앙종무기관이 곳곳으로 흩어져 있어 조직 통합의 시너지 효과는 12월 예정된 화재복구 이후 본격적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뉴미디어로 확산되는 '힙한 불교'

불교박람회, 사찰음식대축제, 연등회 등이 잇따라 젊은 세대의 높은 관심을 받으면서 '힙한 불교'의 흐름을 이어가기 위한 뉴미디어 활용 포교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조계종은 뉴미디어 포교 확산을 이끌 '미디어홍보실'을 신설하고 공식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이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법문부터 디자이너, 교수, 예술가 등 각계 불자들의 삶과 성공 사례를 소개하는 '조계인사이드', 종단을 대표하는 스님들의 수행과 포교 고민을 다루는 '조계종의 미래를 여는 사람들', 조계종 사찰탐방 콘텐츠까지 다양한 코너로 젊은 층과 소통하고 있다. AI를 활용한 찬불가 제작과 뉴스 제공 숏츠도 신선함을 더한다. 현재 구독자는 2만 7000여 명에 달한다.

AI 전법 · 스마트 교육 플랫폼 구축

숨 가쁘게 임기 3년을 달려온 진우 스님은 지난 6월 23일, 취임 1000일을 맞아 미래 전법포교 혁신 비전을 밝혔다. 취임 이래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108배를 해 온 진우 스님은 이날도 조계종 대웅전에서 1000번째 108배를 올린 후 △선명상 보급 △안정적 재정 기반 마련 △AI 포교콘텐츠 개발 △청년세대 소통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먼저 종단이 분담금에 의존하지 않는 재정 구조를 확립하고, 본말사의 재정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수입 구조를 다각화하는 한편, 윤리적 수익 사업을 육성해 투명한 재정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경전과 선어록, 논서 등 아직 디지털화되지 않은 방대한 자료를 정리해 AI 학습 기반에 탑재, 미래 세대가 불교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같은 미래 비전을 힘 있게 추진하기 위해 조계종은 이른 시일 내에 AI 시대에 부합하는 정책과 실행 로드맵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8기 화쟁위 출범… "대사회 역량 강화"

24명 위원 구성…임기 2년
내년 2월 국회서 세미나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취임 3주년을 맞아 제8기 화쟁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불교 대사회적 역할 강화에 나섰다.

진우 스님은 9월 24일 서울 진관사 함월당에서 8기 화쟁위 2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임기는 2년이다.〈사진〉

8기 화쟁위는 다층화한 사회적 갈등 양상에 대응해 인적 구성을 한층 다양화했다. 승가 위원으로는 위원장 정만 스님을 비롯해 반야사 주지 심경 스님, 용화사 주지 성직 스님, 백련사 주지 승원 스님, 불교신문사 사장 원허 스님, 전 파계사 주지 허주 스님, 총무원 사회부장 진성 스님이 위촉됐다.

재가 위원은 김희옥 변호사, 정갑윤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강창일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이사장, 강태선 블랙야크 회장, 엄홍길 엄홍길휴먼재단 상임이사 등이 포함됐다.

위촉식에는 범어사 방장 정여 대종사와 이헌승 국회정각회장, 주호영 국회정각회 명예회장, 이기흥 불교리더스포럼 상임대표도 자리해 화쟁위의 활발한 활동을 응원했다.

진우 스님은 "종단은 교리의 숭고한 이상을 현실 속에 구현해, 화쟁위원회와 함께 갈등의 매듭을 풀어내는 화쟁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화쟁위원장 정만 스님은 "상생과 화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첫 사업으로는 내년 2월 임시국회 개원에 앞서 국회에서 '화쟁'을 주제로 한 대규모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다. 김내영 기자



2026년 템플스테이 예비운영사찰 선정 공고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한국불교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불교문화 대중화 및 문화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템플스테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템플스테이 활성화에 기여할 역량있는 템플스테이 예비운영사찰을 선정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불기2569(2025)년 9월 15일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일 화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 Cultural Corps of Korean Buddhism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지정요건

제4조(지정요건) ① 운영사찰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찰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전통사찰로 지정된 사찰 또는 1개동 이상의 전통가람 구성의 기본적 당우를 갖춘 사격의 사찰
2. 템플스테이 참가자 20인 이상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실, 숙박시설 및 편의시설을 갖춘 사찰
3. 템플스테이 운영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도법사 스님 및 실무자가 배치된 사찰
4. 템플스테이 및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사찰
5. 템플스테이 운영에 필요한 제반 자원을 구비하고, 유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예산규모를 갖춘 사찰

신청절차안내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실사	3차 면접심사	최종 선정	예비운영
2025년 10월	2025년 11월	2025년 11월	2025년 12월	2026년 1~12월
지정신청서 서류심사	서류심사 합격사찰 현장실사	현장실사 합격사찰 주지스님 면접심사	운영위원회 상정·의결	예비운영기간 (경상보조금 미지원)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심사단계별 평가기준

구 분	평가항목	평가근거
1차 서류심사	운영사찰 지정 관련 지정요건 충족 확인	서류심사 평가표
2차 현장실사	사찰의 참가자 수용태세 확인	현장실사 평가표
3차 면접심사	대표자(주지스님)의 템플스테이 운영계획 청취	면접심사 평가표

신청안내

가. 신청기간: 2025년 9월 15일(월) ~ 10월 14일(화)
나. 신청자격: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 가입된 종단 소속 사찰
다. 신청서류
 1) 2026년 템플스테이 예비운영사찰 지정신청서('붙임' 자료 포함)
 2) 서류 양식 다운로드
 - 템플스테이 홈페이지(www.templestay.com)
 -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홈페이지(www.kbuddhism.com)
라. 신청방법: 서류 원본 및 파일 모두 제출
 1) 원본 제출: 방문 또는 우편 접수(신청 마감일 도착 분에 한하여 접수)
 2) 파일 제출: 제출 서류 일체를 스캔하여 파일 제출(yki1124@templestay.com)
마. 접수 및 문의
 1) 접수: (03145)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56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4층
 2) 문의: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템플스테이팀 대리 윤지호(02-2031-2032)
바. 서류심사 결과발표: 공문을 통해 개별 통보

※ 신청기간 경과 및 구비서류 누락 시 탈락